전문대도 학사학위 준다

내년부터 졸업자 전공심화과정 이수하면 수여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대학교도 4년제 대학처럼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문대학(2년제 또는 3년제)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입학 자격을 얻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전문대 학사 과정이 '교육의 질'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본회의를 거쳐 발효되면 4년제 대학 수준의 교육여건(교원·건물·시설·설비 등) 및 프로그램을 보유한 전문대학에 한해 전공심화과정을 인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학위 과정은 전문대 졸업생이 1년 이상 산업체에서 일하다 계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으로 돌아와 재교육을 받는 개념이다. 1~2년인 이 과정을 밟아 재학 시절 학점과 합쳐 총 140학점 이상을 얻으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문대 졸업자들이 학사 학위를 따려고 전공과 무관한 4년제 대학에 편입하거나 방송통신대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대졸업자의 4년제 대학 편입생 수는 2002년 2만600명이었고 2003년 2만2천281명, 2004년 2만707명, 2005년 2만1천89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은 광주 7개교, 전남 10개교 등 모두 17개교이며, 입학정원은 광주 2만4천584명, 전남 2만9천424명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7일 오후 500여 명의 주민·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동구 아카데미' 개원식. 동구청은 주민들의 평생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매주 수요일 다양한 주제로 강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문화수도 시민 평생학습 길 열려

광주 '동구 아카데미' 개원

광주시 동구가 지역민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을 위해 '동구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7일 오후 3시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아카데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이끌어 갈 시민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화·교육·경제·건강·여성 등 관심이 높은 주제와 경륜 있는 강사를 초빙,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카데미는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수강신청은 동구 평생학습문화추진단(608-2150~2153)에 문의하면 되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강의료는 무료다. 구청은 우수 수강생과 팀에 대한 '학습 포인트제'를 실시, ▲대상 : 표창 및 평생학습 선진도시 견학 ▲우수상 : 표창 및 동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무료수강 등 특전을 부여한다.

한편 개원 기념 첫 강좌는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건강 이야기'(강사 : 홍혜걸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디지털 교과서로 달라지는 미래교실

교과서·책가방·칠판 없어지고

단말기 무선망 통해 시험 준비

광주시 동구 H초등학교 6학년인 민희.

학교에 가는 길엔 교과서·참고서·공책·필통 대신 단말기 가방을 챙긴다. 수업 중엔 전자펜으로 메모를 하고 문제를 풀며 '쪽지 기능'을 이용해 질문을 한다.

시험을 준비할 땐 단말기 무선망을 통해 참고서·문제집·사전 등의 자료를 검색,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한다.…

민희의 공부 방식은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 후 크게 달라졌다. 책가방과 칠판도 없어졌다.

교육부는 오는 2011년까지 6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교를 ▲2007년 14개교 ▲2008년 20개교 ▲2010년 25개교 ▲2011년 100개교로 늘린 뒤, 이후 전면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기간에 디지털교과서 유통 및 품질관리 체제 구축, 교사연수, 법·제도 개선, 교육환경 구축, 효과성 분석연구 등 16개 분야에 대한 연구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보급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학생들 간 교육격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디지털교과서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많다.

광주의 한 일선교사는 "디지털교과서 보급으로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인터넷 중독 등 통신매체 의존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디지털교과서=종이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모두 디지털화해 전용 학습단말기(태블릿 PC)나 개인 PC에 탑재한 뒤 통신망을 이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문서·그림자료· 동영상·애니메이션·가상현실·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해 수업을 한다.

승강기 문 검사기준 대폭 강화

日·EU보다 높이고 15년이상땐 특별관리

지난해 광주·전남에선 5건의 승강기(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 5명이 중상을 입었다. 2005년에 1명이 숨졌다. 2000~2004년엔 6건의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올 현재 광주·전남에 설치된 승강기는 2만여 대(광주 1만1천600, 전남 8천400여 대). 아파트와 사무실 등 승강기 이용자들은 탈 때마다 항상 추락·비상정지·정전 등 불안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승강기 추락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일본·유럽보다 강화된 승강기 문 검사기준 등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기표원은 문 검사기준 강화와 함께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기준을 제정해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검사에서 불합격된 승강기에는 검사원이 현장에서 해당 승강기에 '불합격'표지를 붙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또 이달 내 모든 승객용 승강기에 주의사항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티커의 문구도 현재 '기대지 마시오'에서 '기대면 추락위험'과 같은 더욱 강력한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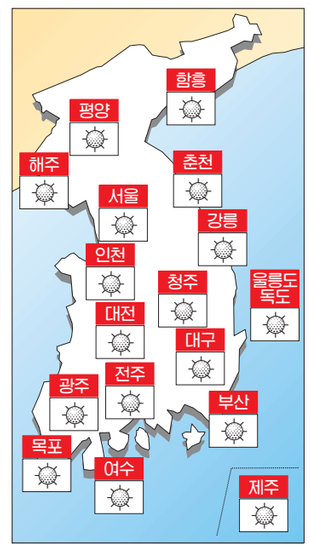
▲승강기 문 검사기준=한국은 현재 승강기 문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가이드슈'(guide shoe·밀립 방지 장치)가 문턱에 충분히 들어가 견고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내용뿐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5㎠ 면적에 약 30㎏의 힘을 가할 때 15㎜ 이상 변형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가운 햇살

구름이 조금 끼겠고 오전 한 때 눈이 오겠다.

3월 8일 (음 1월 19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2~8℃
목 포	구름조금	0~7℃
여 수	구름조금	0~7℃
완 도	구름조금	0~8℃
구 례	구름조금	-5~9℃
해 남	구름조금	-2~8℃
장 흥	구름조금	-3~8℃
고 흥	구름조금	-2~8℃
순 천	구름조금	-4~9℃
영 광	구름조금	-2~7℃
진 도	구름조금	-2~9℃
전 주	구름조금	-3~8℃
남 원	구름조금	-5~8℃
정 읍	구름조금	-4~8℃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 04:43 10:47 썰물 〈 09:55 22:04
여 수 밀물 〈 11:16 23:38 썰물 〈 05:08 17:16

▲해뜸 06:54 ▲해짐 18:33 ▲달뜸 22:37 ▲달짐 08:3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날 씨						
최저/최고	-1/13	4/9	-3/8	-2/11	-2/12	-1/13

'꽃샘추위' 농민 울고 어민 웃고

갑작스레 닥친 '꽃샘 추위'를 두고 농민과 어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속된 이상고온으로 평년보다 빨리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와 산수유는 강풍과 기습한파로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매화의 경우 개화시기에서는 영하 8도, 과실상태에서는 영하 4도가 한계로 알려져 있다.

산수유도 개화 직후 몰아닥친 눈과 기습한파로 약간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

김영관(51) 광양시 다압면 농업인 상담소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매화가 10여 일 빨리 피었다"며 "이번 강풍과 저온 영향으로 꽃가루를 옮겨 수정시키는 벌들의 활동이 없어 결실률이 저조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촌-매화·산수유 등 수정 못해

어촌-김·미역 양식 작황 큰 도움

반면 겨울 내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어온 해조류 양식 어가들은 한파를 내심 반기는 표정이다.

김·미역 양식 어민들은 지난해 10~12월 수온이 평년보다 2~3도 높은 12~13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정상적인 생육이 안돼 피해를 입어왔다. 김의 경우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엽체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미역 역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13년째 다시마 양식을 하고 있는 김태민(53·완도군 생일면) 씨는 "지난해 12월 다시마 채묘(採苗)를 했으나 고수온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죽어버려 2~3번 정도 추가로 작업을 해야 했다"며 "며칠 새 추위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작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주)한국에틱 '07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 선정 740kw 확정
신재생에너지 정부 무상 보급보조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온수·난방시스템
내 집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자!